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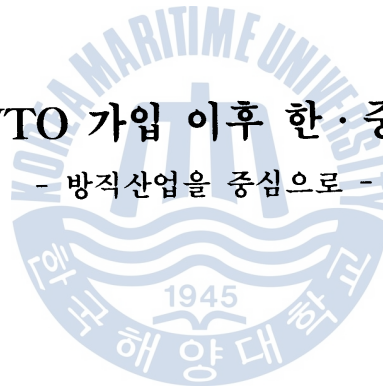
정해져 있다.

그러나, 契約을 체결하고 그 내용과 조건을 備船契約書에 구성할 때 法律에 規定이 없다면 實務者들이 企業運用에 있어서 불안해하며, 企業實務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우리 海商法은 法律關係에 관한 예측가능성의 부여를 하지 않는 것이 되어, 契約의 締結 당시 契約條件 構成의 根據規範으로서 또는 契約의 締結 이후 契約解釋의 根據規範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海商法에 備船契約의 規定들을 정비하고 規定하는 문제는 의미가 있다.

海上物件運送法과 유기적 관계에 있는 기타의 영역에 있어서도, 國際的 立法動向의 추이를 지켜보가며 國際條約을 적극적으로 國內法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특히 船舶의 押留·假押留 解放時 필요한 擔保의 제공에 있어서 國際海運實務에 부합하도록 입법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논하였다. 共同海損에 있어서도 國際的인 統一規則으로서 효력을 갖고 있는 요크앤트윙프 규칙에 따라 積荷處分權이 확대되도록 입법할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13.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중 무역발전방안

- 방직산업을 중심으로 -



무역학과 윤동일
지도교수 이수호

1978년 중국정부가 대외개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중국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있었다. 방직산업은 중국경제의 중심산업으로서 중국 대외무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방직산업은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의 기술방면에도 중국을 앞서고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한 이후 과세의 하락, 무역장벽의 점차 폐지에 따라, 한국의 방직산업은 필연코 중국 방직산업과 한·중무역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바로 한·중 방직품무역의 발전방향을 찾아내기 위하여 한국 방직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중방직품무역의 발전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아래 몇 개점을 볼 수 있다.

1. 한국 방직산업은 중국 방직산업에 대한 경쟁력평가 모델을 구축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여야 한다.
2. 한국방직업은 대중국 직접투자 및 자본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3. 한국기업은 중국을 그 생산기지로 만들고, 동시에 중국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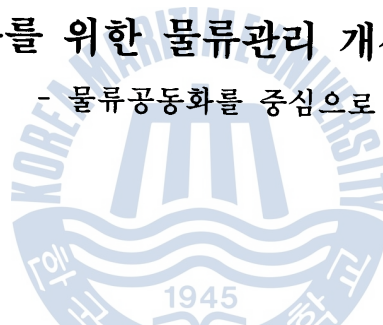
하여 최대의 이윤을 모색하여야 한다.

4. 한국기업은 중국 내에서 판매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5. 한·중 양국은 양국의 방직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지간의 기술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6. 한·중 양국은 방직산업 집적지를 설립하고 그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7. 한·중 양국정부는 고 효율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여 사호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8. 한·중 사업협력 주체의 자기화와 정부 역할을 증대하여야 한다.

한·중양국의 방직품무역발전은 세계방직산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타 영역에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여야 한다.

14.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물류공동화를 중심으로 -



무역학과 조 상호
지도교수 이수호

1980년대 이후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과 함께 1987부터 199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성장률이 7%에 달하는 등의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과 WTO출범에 따른 개방과 함께 나타난 국제교역의 증가로 인한 화물과 상품의 유통수요 증가율은 국민경제규모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연평균 물류비의 증가율은 14%에 달하고 있어 물류비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이 높은 물류비가 대외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류인프라 기반확충을 위하여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주요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은 열악한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물류센터 건설 및 가격파괴 등을 통한 유통구조의 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각종규제, 효율적 물류관리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장치 미비 등으로 기업의 효율적인 물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이 어려운 유통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물류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물류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류합리화 사업을 추진해온 일본도 이러한 물류환경에 처해 물류공동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물류난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동 집배송은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도심교통 혼잡완화 및 배기가스, 소음